

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2. 26.(화) / 총6매(본문3)
담당 부서	교통안전복지과	담당 자	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정규철, 주무관 이선명 • ☎ (044)201-3870, 3871
보 도 일 시		2019년 2월 2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6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,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한다

220대 이상 보급국비 47억 지원...안전운행 매뉴얼표준플랫폼 등 제도 개선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*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 보급하는 한편,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*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

○ 올해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(150대) 보다 50% 확대된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며, 국비 지원*은 전년도 30억 원에서 60% 증가된 47억 원으로 확대한다.

* 개조비용 42백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,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%(서울은 국가 40%, 서울시 60%)씩 매칭하여 보조

《 연도별 보조금 지원실적 ('13년~'19년, 단위:백만 원) 》

구분	합계	'13	'14	'15	'16	'17	'18	'19
금액	32,868	4,992	5,488	5,800	5,228	3,660	3,000	4,700
대수	1,652	258	277	290	264	193	150	220

□ 또한,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(휠체어 고정장치, 탑승객 안전띠 등)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량운행의 안전성 등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,

○ 내부장치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*을 마련하여 「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」 시행규칙을 개정('19.2.8)하였고, 올해 보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차량이 제작될 예정이다.

*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(750mm×1,300mm),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, 머리 지지대, 등받이 등의 기준 및 강도 시험방법 등 규정

- 이와는 별도로, 특별교통수단의 **안전사고 예방**과 차량 운행에 따른 **안전성 증진** 등을 위하여 차량 관리자나 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“**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**”을 마련하여 2월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.
 - 매뉴얼에서는 우선 “**운행관리자 준수사항**”으로 운전자의 기본자격이나 차량운행 준비상태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**자격관리사항**, **운전자 교육** 및 근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,
 - “**운전자 준수사항**”으로 승차→주행→하차의 단계별 차량 운행시 **안전관리 지침**과 이용자 보호 및 긴급상황 대응방안 등 **안전운전 지침** 등을 포함하고 있다.
-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**효율적인 운영** 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**표준플랫폼 시험운영(테스트베드)**을 실시한다.
- 정부-민간 공동 연구개발(R&D)*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지역간 연계를 통한 **효율적 이용방안** 및 **표준화된 시스템 운영방안** 등을 포함하는 **표준플랫폼****을 개발하였고,
- * 「이동불편 교통체계 개선기술 개발」15.8~19.6, 연구총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
- (연구내용)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관련 기술 개발,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개발 등
- ** 표준플랫폼 :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방법 및 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각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도모
- 편리한 예약, 실시간 차량배차 및 관제, 지역간 차량이용 연계 및 공동배차, 이용내역 DB화, 센터/운전자간 실시간 연락망 구축 등 가능
- **시험운영 참여 기관**으로, **전라북도의 적극적 참여하에 전주시↔ 완주군 컨소시엄**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, **3.4일부터 약 6개월간** 실시할 예정이다.
 - 시험운영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에서 **참여자 모집 방식**으로 진행하고,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**전용 앱**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, **표준플랫폼**을 통해 배차 등을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,

○ 실시간 차량 관제, 차량 위치기반 스마트 자동배차, 수요응답형 노선운행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도 시험해 볼 예정이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, 장애등급제 개편*에 따른 법정기준**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(안)도 추진하고 있다.

* '19.7월부터 기존 1~6등급에서 중증, 경증으로 개편

** 현행기준 : 장애인 1, 2급 200명당 1대

○ 개선(안)은 이용대상자 및 법정대수 등의 적정한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, 3월까지 장애인단체, 지자체 등 이해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과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
○ “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 안전복지과 정규철 사무관(☎ 044-201-3870), 이선명 주무관(☎ 044-201-38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등

필수 설치

휠체어 고정 장치



- 특별교통수단 바닥 레일(Rail)과 체결되는 슬라이더와 휠체어에 체결되는 고정고리로 구성



이용자 구속 장치



- 이용자 어깨에서 측면허리, 복부를 지지해주는 3점식 안전벨트



임의 설치

이용자 머리/등 지지대



- 휠체어 이용자 후면부 지지를 위한 등받이와 후방 추돌시 머리·목 부상 방지를 위한 머리 지지대로 구성

□ 추진 배경

-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성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, 이용자-운전자간 마찰 등 현장 민원 증가
- 지자체별로 현장 매뉴얼이 상이하거나, 안전운행 지침이 없는 경우도 있어 정부의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필요

□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1. 운행관리자 준수사항

- (운전자 자격관리) 소양 및 기본자격, 승무준비 상태 점검 등
 - * 운전자 채용·배치시 결격사유 및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여부 확인 등
 - * 교통안전관리 전담인력 지정을 통한 차량/운전자 관리 및 점검 등
- (운전자 교육 및 보호 관리) 교육활동 실시 및 근로여건 개선 등
 - * 탑승자 응대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및 기본소양, 업무요령 등 교육 실시
 - * 운전자의 과로 예방을 위하여 근로여건 및 적정 휴식시간 보장
 - * 이용자와 마찰 예방 등 운전자 보호 조치 이행 등

2. 운전자 준수사항

- (차량 운행시 안전관리) ‘승차 - 주행시 - 하차’ 단계별 준수사항 제시
 - * (승차 시) 올바른 승강설비 및 안전장치 운용, 안전장치 체결상태 확인 등
 - * (주행 시) 급출발/급제동 지양, 적정 차간거리 확보 등
 - * (하차 시) 안전한 장소 정차, 차량 주변 사각지대 주의 등
- (안전 운전 지침) 차량특성 이해, 이용자 보호, 긴급상황 대응 등 제시
 - * 운전자 차량 운행 의무사항 제시
 - * 눈·빗길, 교차로 통행 방법,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 등 제시
 - *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사항 등 제시

참고 3

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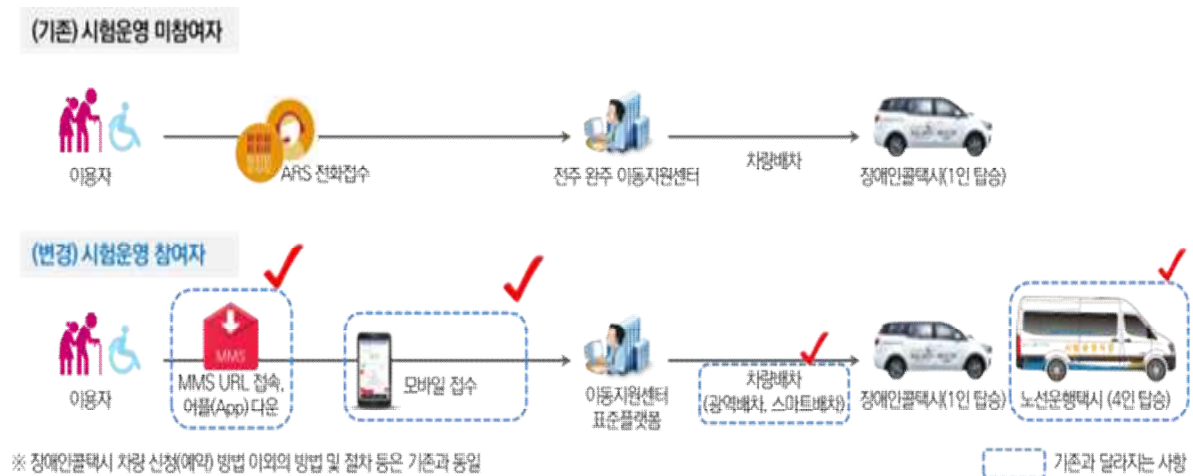
□ 추진 배경

- 정부-민간 공동 R&D*를 통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간 서비스 및 표준화된 정보연계 기능을 포함한 광역이동 지원 기능 확대 연구

- 연구의 일환으로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간 서비스 연계, 실시간 차량 관제, 위치기반 스마트 자동배차등 포함

* 「이동불편 교통체계 개선기술 개발」 : '15.8~'19.6, 연구총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

□ 서비스 절차



□ 기대 효과

- 공동배차 등 지역간 서비스 연계 확대
- 효율적 차량배차 및 운영을 통해 운행횟수 증가 및 이로 인한 대기시간 단축 등 효과
- 모바일앱, 웹 등을 포함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예약 및 배차 가능
- 이용패턴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해 서비스 개선의 기반 마련
- 휠체어 고정상태 모니터링 및 이용자 알림장치 등 모니터링 기능 강화